

01 교회소식

은혜의 강이 온 땅에 흐르도록...

이슬람교가 국교인 파키스탄에서 따르는 표적으로 주의 복음을 확실히 전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 권능의 선교 현장.

02 생명의 말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백한다는 것은 단순히 입술로만이 아니라 철저히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럴 때 주의 보혈이 모든 죄를 깨끗케 하신다.

03 기획특집

나눔의 행복

주의 은혜에 감사하여 장애인 복지 증진에 힘써온 우리 교회 이완범 집사가 최근 서울특별시장 표창을 수상한 소식.

04 간증

“내 영혼이 은총 입어~”

50년 된 요실금을 치료받은 신동화 집사와 수술하지 않고도 상완골 분쇄골절이 깨끗이 치료된 몰도바 드미트리 따나스 성도 간증.

# 만민뉴스

제864호 2018년 11월 18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 “생명의 말씀과 권능의 역사, 강력했습니다!”

### 2018 파키스탄 목회자 세미나 및 손수건 집회



지난 10월 23일부터 3일간, 길태식 목사(대전만민교회 담임, 중부지방회 회장)는 파키스탄의 구즈란왈라, 라호르, 세이쿠푸라에서 목회자 세미나와 손수건 집회를 성공적으로 인도했다.

사도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취해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가 나간 것처럼(행 19:11~12), 길 목사가 말씀 증거 후 당회장 이재록 목사에게 기도받은 권능의 손수건으로 기도할 때 갖가지 희한한 능이 나타나 주의 복음이 확실히 전파되었다.

첫 일정은 10월 23일(화) 낮 12시, 구즈란왈라 연합교회에서 구즈란왈라 목회자 및 일꾼 세미나로 개최되었다(사진 7). 감사 길 목사는 ‘십자가의 섭리들’(벧전 2:24)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담긴 섭리와 가상천원에 대해 증거했다. 이어 손수건으로 기도해 줄 때, 선천성 농아인 솔로몬 아들은 기도받은 즉시 소리를 듣고 말하기 시작했고(사진 3), 유니스 성도는

5년 된 심장병을 치료받는(사진 4) 등 갖가지 질병을 고침받아 영광 돌렸다.

이번 세미나를 준비한 아비드 길 장로는 “말씀과 권능의 역사는 강력했습니다. 한 여 성도는 사고로 2개월간 누워만 지냈는데 기도받자 그 자리에서 일어나 앉는 것을 보고 사람들에게 큰 믿음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했다(사진 1, 2). 성 요셉 교회 바부 쇼컷 목사는 “말씀은 최고였으며,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라고 고백했다.

다음 날인 10월 24일(수) 낮에는 13명의 총회장 및 주요 목회자들과의 만남에서 향후 파키스탄 선교에 관해 협의했으며, 목회자들은 “이재록 목사의 저서를 활용해 신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싶습니다”, “지속적으로 성경의 복음을 배우고 싶습니다”라고 요청했다.

이날 오후 5시에는 라호르 FGA운동장에서 라호르 손수건 집회가 개최되었다(사진 6). 길 목사는 1만여 명이 참석한 가

운데 ‘빛 가운데 행할 때 축복’(요일 1:5)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은 빛이시며 빛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축복을 받을 수 있음”을 증거했다.

이후 밤 8시 30분부터는 세이쿠푸라 지역에서 손수건 집회를 인도하며 ‘치료하는 하나님’(출 15:26)을 설교한 후 권능의 손수건으로 기도해 주었다(사진 8). 현장에는 2,000여 명이 모였는데, 손수건 기도를 통해 시력 회복, 심한 다리 통증 등 각종 질병이 치료되었다. 쉬바 성도는 “이삭TV를 통해 이재록 목사의 설교를 즐겨 듣는데 설교 후 해 주시는 환자기도를 받고 임태하지 못하던 동생 부부가 임태의 축복을 받았어요”라고 간증했다.

권능의 손수건 집회를 준비한 마티 카라맛 목사는 “수천 명이 이삭TV를 통해 이재록 목사의 말씀을 들으며 치료와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권능의 손수건 기도를 통해 수많은 사람이 치료받

았습니다. 사람들은 이재록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손수건 안에 하나님의 권능이 담겨 있음을 알기에 기도받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라고 했다.

마지막 일정으로 10월 25일(목), 라호르 목회자 및 일꾼 세미나가 유한나바드 지역에서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사진 5). 이재록 목사의 ‘권능’ 영상을 상영한 뒤, 길 목사는 기도와 예배의 중요성 및 드리는 방법(막 9:29 ; 요 4:24)에 대해 전했으며, 질의응답 시간에는 성경에 입각하여 명쾌하게 답변하니 참석자들은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러진 권능의 손수건 기도를 통해 심장질환, 폐질환, C형 간염 등 각종 질병이 치료되었으며, 뇌 손상으로 말을 하지 못하던 아동이 기도받은 즉시 말을 하기 시작하여 기쁨으로 간증했다.

따르는 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전파하게 하신 살아 계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시리즈 5

# 우리 죄를 자백하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 요한일서 1:9 -

“하나님께서 미쁘고 의로우시기에 우리가 그 앞에 자백할 때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며  
빛으로 나아갈 때 더한 축복을 주십니다”

만민중앙성결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작은 어둠이라도 결코 숨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쁘고 의로우시기에 우리가 자백하면 그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문제는 자신이 어둠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마다 잘못이나 죄로 여기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곧 각기 양심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과 교양이 다르며, 나름대로 세워 놓은 가치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죄 없다 할 수 없는지, 또 죄는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 1.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없다 할 수 없는 이유

요한일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라고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을 보면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는 기를 통해 그 죄성을 이어 받았기에 결코 죄 없다 할 수 없지요. 이것이 바로 원죄이며, 이 외에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스스로 짓는 자범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영원한 사망에 이르러 지옥불에 떨어지는 무서운 형벌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롬 3:23, 5:12).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약 2천여 년 전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셨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나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하여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고(롬 3:24, 5:1),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요 1:12).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죄를 사함 받았다 해도 율법을 온전히 행하는 성결의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는 근본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버리지 못한 악의 모양들로 인해 순간적으로 죄를 짓기도 합니다. 진리를 알지 못해 죄를 짓기도 하고, 알면서도 아직 믿음이 연약하여 죄를 짓기도 하지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온전한 성결에 이를 때까지는 그 누구도 스스로 죄 없다 할 수 없고, 만일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가 마음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빛으로 비추기에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 있으면 깨닫게 되지요. 그러니 진리가 그 속에 있다면 온전한 성결을 이뤄 어둠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결코 죄 없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며(요일 1:9), 자백한 것은 더 이상 죄 있다 하지 않으십니다.

### 2. 하나님의 법 안에서 ‘죄’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죄’란 국가나 사회, 또는 어떤 집단이 정해 놓은 법을 어김으로써 그 결과 위반한 사람에게 벌을 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행위나 태도를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천국 백성으로서(렘 3:20), 하나님 나라의 법인 영계의 법을 지켜야 하며 이것을 어기면 죄가 됩니다.

영계의 법은 영의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으로서, 성경 66권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한 대로 성경에 위배되는 모든

**만민뉴스**  
등록 서울, 다 01840(1989.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4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자녀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3:00 PM
다녀오실차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은행 1002-480-336879 (예금주 이호상)



것이 불법이요 죄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체가 이미 죄가 되지요(요 16:9). 그러면 하나님 법 안에서 죄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행함으로 지은 죄 곧 육체의 일입니다.**

육체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통해 벌을 받게 되고, 결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고후 5:10 ; 갈 5:19~21).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았다 해서 처음부터 모든 육체의 일을 단번에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 속에 빛 가운데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면서 열심히 기도해 나갈 때 비로소 하나씩 버려 나갈 수 있고, 버려 나가는 이 행함이 믿음이며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버리지 못한 것이 있으면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돌이켜야 합니다. 이렇게 자백하며 힘써 버려가는 사람은 언젠가는 다 버릴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육체의 사람이라 하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게 하시지요. 자백하고 돌이켜 나가면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받아 미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마음으로 지은 죄 곧 육신의 일입니다.**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에 품은 온갖 악들이 어두움이며 죄입니다(롬 14:10 ; 약 4:11~12). 구약시대에는 행위로 나타난 불법만이 죄였지만, 신약시대에 와서는 마음에 품은 불법까지 죄가 됩니다.

구약시대와는 달리, 신약시대에는 성령을 의지하여 마음에 할례를 받아가면 능히 마음의 죄까지도 버려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할례를 통해 변화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 안에 거하므로 마음에서부터 온전한 빛의 행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빛은 용서와 사랑, 자비입니다. 또한 상대의 유익을 구해 주며 모든 것을 선으로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와 반대되는 판단, 정죄, 미움, 시기, 질투 등 어두움의 것을 마음에 가지고 있다면 단지 눈에 보이게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서 죄 없다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더욱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나감으로(요일 5:3) 빛에 속한 열매들을 맺어야 합니다.

**3. 어두움 같지 않으나 하나님 보시기에 어두움인 것**

하나님 말씀으로 밝히 드러나는 어두움은 발견해 벗어내기가 어렵지 않은데 언뜻 보기에는 어두움이 아닌 것 같은데 근본이 어두움인 분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이 잘되는 것을 보고 시기 질투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에 대해 낙망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남에게 악을 행하거나 마음에 시기, 질투의 형태로 담고 있는 양기 때문에 어두움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빛에 속한 영적인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고전 13:6). 상대가 나보다 더 사랑과 인정을 받는 것을 볼 때 낙망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지요.

다른 예로, 자신은 진리를 좇는다고 생각했는데 화평함이 깨지는 경우입니다. 가령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전체 의견을 자신이 원하는 쪽으로 이끌었는데 이로 인해 힘들어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그것을 개의치 않는 것입니다. 빛을 좇았다면 반드시 화평함이 따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화평은 내가 옳더라도

비진리만 아니라면 상대에게 맞추어 주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누구와도 결립이 없는 마음입니다. 결국 이런 빛에 거하지 않았기에 어두움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자기 보기에 옳다 여겨지므로 어두움이라 생각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일을 지시하거나 지시를 받는 경우, 그 일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에 따라 각각 그 반응이 다른 것을 봅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면 일을 시킨 사람은 “내가 지시해서 한 일이니 내 공로다” 하고, 일을 직접 한 사람은 “내가 했기 때문에 내 공로다”라고 주장하지요. 하지만 결과가 좋지 않을 때는 서로가 어찌하든 책임을 모면하려 합니다. 그러면서도 서로 전혀 잘못이라고 여기지 않고 도리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이렇게 남의 탓으로 돌리려는 마음 자체를 버려야 설령 누군가가 큰 잘못을 했다 해도 사랑으로 그 허물을 덮어 줄 수 있는 빛에 속한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책임을 전가하거나 모면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함께한 것만으로도 책임을 느끼고 자신의 탓으로 돌릴 뿐 아니라, 애매히 고난을 당하거나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 해도 감수할 수 있는 마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이를 기뻐하시며 죄 있다 하지 않으시지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자백할 마음이기 때문에 의롭게 여기시며 축복해 주십니다. 이후 그가 함께하는 일에는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지키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4. 빛 가운데 거하려면 자백하고 돌이켜야**

자백한다는 것은 단순히 입술로만이 아니라 죄를 고백한 후에 철저히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럴 때 주님의 보혈이 그 죄를 씻어 주십니다. 그런데 혹여 여전히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요일 1:6).

다윗 왕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을 만큼 빛 가운데 행했지만 처음부터 흠 없이 온전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그 여인이 임신

을 하자 이 사실을 은폐하고자 여러 방법을 동원하다가 계획이 거둬 빚나가기 나중에는 우리를 이방인의 손에 죽게 하는 엄청난 죄까지 범하게 됩니다. 이는 바로 마음 안에 있던 육신의 정욕 즉 자기에게 좋을 대로 취하고자 하는 마음과 눈을 통해 역사되는 안목의 정욕 등의 어두움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그의 죄를 지적하시니 다윗은 즉시로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죄에 대한 보응으로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죽고, 반역한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등 상상할 수 없는 연단의 시간이 있었지만 다윗은 결코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지요. 심지어 백성 중에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며 욕하는 사람이 있어도 마음에 요동함 없이 참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수용하였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진정 회개하며 돌이키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시고, 연단을 통해 흠 없이 빛에 거할 수 있는 온전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미쁘시다’ 한 것은 상대의 단점이 아니라 장점을 보시고 허물까지도 사해 주심을 말하며, ‘의로우시다’는 것은 자백하고 돌이키는 사람을 어려움 가운데서 회복시켜 주실 뿐 아니라 변화되는 만큼 더한 축복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어두움에 있으면서 빛으로 나오려 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 일단 빛으로 나오면 무한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자백하고 빛 가운데 거하는 자녀의 간구에 즉시로 응답해 주십니다. 빛이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거짓 없이 비추어 어두움이 조금도 없는 빛의 자녀가 되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제가 받은 사랑을 나눌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우리 교회 이완범 집사(2대대 10교구, 지체장애인협회 금천구 지회장)가 지난 11월 1일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특별시장 표창을 수상하였다.

2급(중증)장애인인 그는 두 살 때 소아마비를 앓고 목발 없이는 걸을 수 없게 되었지만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매사에 긍정적인 자세로 생활하였다. 그러던 중 2001년 라디오 방송에서 장애인복지사 강좌가 있다는 소식을 들은 아내의 조언으로 이 길에 발을 들여 놓게 되었다.

그 후 사회복지사 및 노인복지사(그린재가노인복지센터장)로도 꾸준히 활동해 온 그는 “어려운 사람들

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좋아서 한 일인데 상까지 주셨다”며 축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아내 이명옥 집사와의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현재 장애인 권익 신장을 위해 인권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송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에서 장애인 복지를 전공하여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편, 2009년에 소외계층의 권익보호와 주위 사람들에게 자활의지를 일깨워주는 등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자랑스런 한국장애인상위원회로부터 ‘공로패’를, 2011년에는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장애인 단체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 및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 “50년 된 요실금을 치료받으니 날아갈 것만 같습니다”

신동화 집사  
(60세, 2대대 21교구)



저는 지난 50년 동안 요실금으로 고통을 받았는데 가족력인지 두 언니들도 요실금이 있습니다. 기침만 해도 실수를 하니 초등학교 때도 바지를 두 개씩 여분으로 가방에 넣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먼 거리를 다닐 때는 항상 할머니들이 쓰는 기저귀를 착용하였고, 오죽 하면 물이 많은 음식은 전혀 먹지를 않았지요.

밤에도 대여섯 번씩 화장실을 가야 하니 잠을 잘 못 자서 어지럽고 피곤할 때가 많았습니다. 자주 실수하게 되니 신앙생활 하면서도 다니엘철야 기도회나 화요 지역기도회, 구역예배에 참석하지를 못했지요. 혹여 참석한다면 기저귀를 대여섯 개씩을 챙겨야 하니 불편한 점이 아주 많았고, 남들한테 뉘새라도 풍갈까 하여 많은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하계수련회 때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치료받으리라 마음먹고 매일 기도로 준비하였습니다.



드디어 8월 6일, 만민하계수련회 첫날 교육 후 은사 집회 때였습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강사 이수진 목사님이 기도해 주실 때 제게 성령의 불이 아주 뜨겁게 임하였습니다.

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찌릿찌릿한 느낌이 들었고 등까지 화끈거렸지요. 그런데 그날 밤은 화장실에 가지 않고 잠을 편히 잔 것입니다. 다음 날, 수련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도 여느 때 같으면 휴게소에 들러 몇 번씩 화장실에 가야 했는데, 한 번도 들르지 않고 곧장 집에 도착하였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료해 주셔서 정상적으로 화장실에 가고 마음껏 똥 볼 수 있으며, 잠도 편히 자고 국물까지 다 마실 수 있으니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제는 다니엘철야에 가서 기도할 수 있고 각종 모임에 편히 갈 수 있으니 신앙생활도 신이 나지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 “수술하지 않고도 상완골 분쇄골절이 깨끗이 치료되었습니다”

드미트리 따나스 성도  
(35세, 몰도바만민교회)



2010년, 저는 알렉산드르 타바라는 형제를 통해 만민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을 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명쾌하게 풀어 주시고 진정으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마음이 느껴져 참된 목자를 만났다는 생각에 매우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저와 친구들은 이 목사님의 설교를 찾아 듣기 시작했고 그 말씀은 큰 감동이 되었지요.

처음에는 집에서 함께 모여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기도하다가 2014년 10월부터는 장소를 임대하여 성전으로 꾸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현재 70여 명의 성도들이 만민과 한 가족이 되어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명의 말씀과 권능의 역사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을 알아가며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이재록 목사님을 직접 뵙고 싶었습니다. 그 간절한 꿈은 마침내 7년 만에 이루어졌지요.



2017년 8월, 만민하계수련회에 참석하기 위해 저는 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마침 수련회 체육대회 때 팔씨름 선수로 출전하게 되어 수련회를 앞두고 연습경기를 하던 중 그만 ‘뚝’ 하더니 오른쪽 팔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병원에서 엑스레이 촬영 결과, 의사는 오른쪽 어깨에서 팔꿈치로 연결되는 뼈인 상완골이 골절되어 빨리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치료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수술을 거절하고 다음 날, 당회장님께 직접 기도를 받았습니니다.

이후 몰도바로 돌아온 뒤 상태

를 확인하고자 병원에서 엑스레이 촬영을 한 결과, 뼈는 제자리로 돌아왔지만 골절이 너무 심해 제대로 붙지 않을 것 같으며, 의사는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팔을 쓸 수 없게 될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회장님의 기도를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온전히 치료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지요.

한 달 후, 다시 엑스레이 촬영을 한 결과 의사는 매우 놀라워하였습니다. “한 달 동안 무슨 치료를 했습니까? 뼈가 제대로 잘 붙어가고 있네요!”

저는 자신 있게 말했지요. “매일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환자기도를 받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의사는 “이 분야에서 일한 지 35년인데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정말 무언가 내가 모르는 강력한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라며 신기해했지요. 저는 “그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능치 못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기도에 응답하시지요”라고 말했습니다.

당회장님께서 항상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진리로 양육해 주신 당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X-Ray 촬영



◀ 기도받기 전  
상완골이 완전 골절되어 뼈 파편이 이동되어 있음.



◀ 기도받은 후  
골절된 뼈 파편들이 정리되어 있고 골절이 나와 정상적으로 유합이 진행되고 있음.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033)641-3790, 010-6334-7750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중앙길 101호 ☎054)748-5777, 010-3747-5777
- 광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73-4512, 010-3343-1537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063)468-7027, 010-7777-70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분성로 477 ☎055)322-7055, 010-6605-2254
- 남동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오봉로 22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충원빌딩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리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998, 010-9140-4194
- 시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9978-2428
- 새창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3 (구남지하철역) ☎051)326-1537, 010-7213-6207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동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달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학로 25-4 ☎041)835-1717, 010-7307-2217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돌길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055)289-9522, 010-9331-4405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길 71 ☎043)297-0017, 010-9271-701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휴자로 113 ☎033)261-4217, 010-2759-7017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양덕남로 153 ☎054)281-9367, 010-8433-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010-8020-7333

- 강동자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효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검단자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3232-7504
- 구리자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부평자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3232-7504
- 북부자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8947-7017
- 분당자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2208-5719
- 수원자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50번길 26, 3층 ☎031)202-8480, 010-8331-1136
- 안산자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역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의정부자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
- 이천자성전 경기도 이천시 이설대천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9458-3922
- 인천자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421-0899, 010-8927-2073
- 일산자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주) ☎031)905-2419, 010-2352-8336